

陶谷 李宜顯 慕道文의 다층적 성격

김 우 정 *

<目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3. 배타적 시선 : |
| II. 묘도문의 특징과
17세기 노론계의 묘도문 인식 | 집단적 이해관계의 작동 |
| III. 이의현 묘도문의 다층적 성격 | 4. 개성의 회석 : |
| 1. 개성의 회석 : | 개인 창작과 협동 창작 |
| 개인 창작과 협동 창작 | IV. 나가는 말 |
| 2. 서사의 개입 : | |
| 형상성 제고를 위한 문체적 차용 | |

<국문 초록>

陶谷 李宜顯(1669~1745)은 肅宗~英祖 연간의 문신으로, 金昌協(1651~1708)을 이어 당송고문의 논리를 강화하고 확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문장가다. 이러한 면모는 200편에 육박하는 慕道文에 잘 나타난다. 묘도문을 짓는다는 것은 당대의 일류 문장가로 인정받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사에서 다루지 못한 역사를 후세에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이다. 때문에 묘도문의 찬술자는 자신의 문장력을 과시하는 한편 사관의 입장에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막상 찬술과정에서는 묘주 및 청탁자와의 관계, 정치적 역학구도, 사상적·학문적 견해차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하게 되고, 그 결과 일반적인 산문과 다른 여러 가지 다층적 성격

* 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rtoran@dankook.ac.kr

을 띠게 된다.

이의현은 묘도문의 태생적 문제인 ‘阿諛’의 혐의를 피하고 ‘揄揚’의 미덕을 담아내기 위해 부심하였다. 이런 이유로 개인적 취향을 접고 청탁자 및 주변 인물들과 협의하여 내용이나 표현을 수정하기도 했고, 집단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상당히 주관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물의 형상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사적 구조를 과감히 차용하여 장르적 한계를 극복하였으며, 전후칠자에 대한 실제적 비판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등 문학적으로 주목할 만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李宜顯, 宋時烈, 金昌協, 前後七子, 墓道文, 碑誌文, 敘事, 修辭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肅宗~英祖 연간의 문신 陶谷 李宜顯(1669~1745)의 墓道文에 내포된 다층적 성격을 살펴본 것이다. 이의현은 노론의 적통을 계승한 인물로, 金昌協(1651~1708)의 뒤를 이어 당송고문의 논리를 강화하고 확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고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다양한 장르의 산문을 남겼는데, 200편에 육박하는 묘도문이 특히 눈길을 끈다. 고문가로 누린 명성에 비추어 본다면 자유의지가 두드러진 개성적인 문예문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의 문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외로 묘도문이며, 그 외에도 館閣文과 公車文이 대부분이다.¹⁾ 『陶谷集』에서 『雲陽漫錄』·『陶峽叢說』·『庚子燕行雜

1) 공용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문학적 전통에 비추어 본다면 중세 한문산문에 서 온전한 의미의 문예문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창작자의 개성과 자유의지가 비교적 잘 발휘될 수 있는 글을 문예문이라 한다면, 公車文이나 館閣文 및 청탁에 의해 지어진 墓道文을 제외한 글이 이에 가까울 것이다. 『陶谷集』의 경우, 序 10편, 記 2편, 傳 2편, 題跋 9편, 祭文 4편, 雜著 4편이 전하는 반면, 疏筭 71편, 啓 3편, 議 1편, 應製文으로 지어진 祭文 9편, 教書 2편, 頒教文 8편, 教命文 2편, 冊文 5편,

識』·『壬子燕行雜識』·『紀年錄』과 같은 별본 저작을 제외한 문장은 총 370제 434편인데, 이 가운데 碑誌文이 204편²⁾으로 절반에 가까우며, 권 수로도 28권 가운데 12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작가로서나 비평가로서 그의 위상을 다룬 선행 연구들이 묘도문에 주목한 것은 당연하다.³⁾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선행 연구들은 한결같이 편장의 구성이나 주밀한 논리 등을 밝혀내는데 머물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작법상의 특징도 이의현 묘도문이 지닌 성격의 일부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당대 최고 수준에 올랐을 뿐더러 수사적 기교를 경계하는 태도를 취했던 작가를 작법이라는 잣대 하나로 온전히 밝혀낼 수는 없을 터다. 선행 연구들이 도전적인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작법상의 문제에 치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오늘날의 문학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묘도문을 문학의 시각으로 제한하여 다루려고 했던 탓이 크다.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누는 관행이 일반적인 오늘날의 시각에서 본다면 실존 인물의 생애를 긍정적인 태도로 기술하는 묘도문은 분명 비문학적 요소가 강한 글이다. 다른 어떤 장르의 고문보다 장르적 규범성이 강하고 청탁에 의해 쓰여지기 때문에 작가의 개성이라든지 자유의지가 제한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도 묘도문을 비문학으로 볼 수밖에 없게 하는 또 다른 이유다. 그러나 이것은 묘도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사전문을 비롯해 논변·서발·증서·잡기 등 고문의 주요 장르들 역시

上樑文 1편 등 공거문과 관각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볼 수 있다.

- 2) 이의현의 碑誌文은 『도곡집』 권9~20에 걸쳐 神道碑銘 31편, 碑銘 3편, 碑 5편, 墓碣銘 65편, 墓誌銘 54편, 墓表 44편이 수록되어 있다. 墓表 뒤에는 行錄 1편도 수록되어 있는데, 성격상으로는 비지문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용도상으로는 비지문의 일반적 범주에 든다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권8 『應製錄』에 수록된 碑陰記 1편과 陵誌 1편까지 포함하면 『도곡집』에 전하는 비지문은 모두 204편이다. 여기에서 그 성격이나 용도가 다른 紀功碑나 宮室廟宇碑에 속하는 글을 제외한 순수한 묘도문은 196편이다.
- 3) 정순희(2004)·민복기(2007)·사경화(2012)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비문학의 범주에 들기 때문이다.

고문은 유학이라는 사상을 토대로 역사적 논증이나 정치적 담론 심지어 일상의 쇄세한 기록까지 포괄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문학 또는 ‘문학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문학을 넘어서서 역사·정치·학문·일상 등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

묘도문은 한 인물이 역사나 정치적으로, 또는 학문이나 인간 자체로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여 전하는 글이다. 그러므로 그 권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치적·학문적 평판이 높은 이에게 청탁하는 경우가 많은바, 묘도문을 많이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사회적·작가적으로 높은 위상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의현의 묘도문은 청탁에 의해 찬술된 것이 대부분이며, 찬술 대상인물 중 상당수는 그와 政脈·學脈·門脈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이들이었다. 따라서 이의현은 묘도문의 태생적 문제인 ‘阿諛’의 혐의를 피하고 ‘揄揚’의 미덕을 담아내기 위해 부심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청탁자 및 주변 인물들과 협의하여 내용이나 표현을 수정하기도 했다. 요컨대 찬술동기에 있어서 자발성이 떨어지고, 현실적 이해관계에 놓인 인물을 대상으로 하며, 장르적 규범성이 강하고, 개성의 발현이 심각하게 제한되기도 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작법과 같은 기술적 차원의 접근으로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바,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도에서 그 다층적 성격을 분석해보는 것이 이 글의 목표다.

II. 묘도문의 특징과 17세기 노론계의 묘도문 인식

묘도문은 비지문의 일종으로 공덕을 기록한 紀功碑,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을 기려 쓴 宮室廟宇碑가 ‘記事’적 성격을 지닌 것과 달리 인간의 일생을 기록하고 추념하는 글이다. 묘도문은 크게 묘 앞에 세우는

墓碑와 묘 안에 묻는 墓誌로 나뉜다. 묘비에는 神道碑, 墓碣, 墓表 등이 있다. 神道碑는 풍수학에서 묘의 동남쪽을 ‘神道’라고 일컫는 데서 유래하였으며, 초기에는 墓碣과 구분 없이 쓰였으나, 唐 이후 墓主의 품계가 5품 이상일 경우에는 碑를 세우고 이보다 낮을 경우에는 碣을 세우는 것으로 구분되었고, 대개는 韻文으로 된 銘詞가 뒤에 붙는다. 그러나 碑의 龜趺의 높이가 9척 이하, 碣의 方趺의 높이가 4척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외에 그 내용과 문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⁴⁾ ‘학문과 덕행을 표장한다’는 의미를 지닌 墓表는 신분에 상관없이 세울 수 있으므로 墓碑의 총칭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銘詞가 없다.⁵⁾ 墓誌는 본래 墓碑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묘주의 생애를 산문체로 기술하고 그 뒤에 銘詞가 덧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례 당시의 상황에 따라 葬誌, 壙誌, 壙銘, 埋銘, 權厝銘, 歸柩誌, 遷柩誌 등 다양한 명칭이 있으나 그 형식과 내용은 대동소이하다.⁶⁾ 吳訥(1372~1457)은 “碑碣은 밖으로 드러낸 것이므로 비교적 ‘상세’하지만 지명은 무덤 속에 묻는 것이므로 ‘근엄’하다.”고 구별하는 한편, “學行의 大節만 기록하고 잔단 선행은 기록하지 않는” 것을 요체로 제시한바 있다.⁷⁾

그러나 이 같은 개념이 시대를 불문하고 통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조선의 경우,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신도비는 2품직 이상만 쓰고 그 이하는 묘갈을 세우는 것이 상례였다.⁸⁾ 또 비갈과 묘표를 함께 세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각각의 쓰임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청탁받은 묘표에 묘주의 世系와 履歷을 기재한 이유를 설명하며 ‘碑碣은 묘주를 찬양함이 위주이고 誌文은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위주이며 묘표

4) 비와 갈의 제도에 대해서는 『常變通攷』 권17 「喪禮」에 자세하다.

5) 吳訥, 『文章辨體序說』 “墓表, 則有官無官皆可, 其辭則叙其學行德履.”

6) 墓誌의 여러 별칭에 대해서는 夏復徵의 『文章辨體匯選』에 자세히 거론되어 있다.

7) 오늘, 『문장변체서설』 “碑·碣表於外者, 文則稍詳; 誌·銘埋於壙者, 文則嚴謹. 其書法, 則唯書其學行大節, 小善寸長, 則皆弗錄.”

8) 이종호(1996)

는 議論을 위주로 하므로 묘표는 비갈보다 간략하고 비갈은 지문보다 간략하다'고 한 宋時烈(1607~1689)의 경우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다.⁹⁾ 오가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비갈에는 묘주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담고, 묘주와 함께 묻히는 지명은 근엄한 문체로 작성한다고 한 오늘날의 견해와 달리 각각의 목적이 다르므로 서술방식도 달라야 한다고 본 것이다.¹⁰⁾

한편 묘도문의 아류라 할 '遺事'의 유래에 대한 언급도 흥미롭다. 그에 따르면 묘도문이 강령과 요체만 서술하는 것이므로 세세한 면모까지 자세하게 기술하기 위해 유사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다.¹¹⁾ 그런데 여기에서 유사의 비교대상으로 역사서와 비지문을 거론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간되기까지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치며 객관적 사실과 그에 대한 평가만 압축적으로 남게 되는 역사기록에 대해서는 쉽게 수궁이 된다. 하지만 개인적 의견이 개입할 수 있는 비지문까지 그 비교대상이 되는 것은 어째서인가. 그 이유는 다음 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9) 宋時烈, 「答或人」, 『宋子大全』 권121. “金石文字, 體各不同. 碑碣, 主於揄揚, 誌文, 主於記實. 故碑碣略於誌文. 至於墓表, 則以議論爲主, 故又略於碑碣矣. 然如別有碑碣, 詳載其世系履歷, 則墓表尤在撮略, 而今茲先墓未知有他文字, 故并記世系履歷之大槩, 此又墓表之別體也. 如或加詳於此, 則記實爲主, 元非本體也.”

10) 朴世采의 경우, 비갈이나 묘표의 제도가 애초에는 다르지 않았으나 후대로 오면서 점차 변하여 비갈 이외에 묘표를 별도로 세우고 그 앞면과 뒷면에 大字와 刻文을 각각 새겨 넣게 되었는데, 그 유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고증하기도 했다. 朴世采, 「石表辨」, 『南溪集』 권59. “惟墓表云者, 莫知其法. 文章下體曰: ‘墓表則有官無官皆可, 其辭則敘學行德履.’ 然其名實制度未有所徵…(중략)…惟其刻文之制, 則未嘗不同, 而此特言表者, 似亦欲異其稱而然耳. 第今人必於碑碣之外, 更設墳前小石表, 又書大字於陽面, 刻文其背, 與古之制度議論不同, 未知昉於何時也.”

11) 송시열, 「清陰先生遺事序」, 『송자대전』 권138. “自古碑碣誌狀之外, 又有遺事, 蓋碑碣誌狀, 提綱挈要, 以成其文, 則零星碎細之見遺者, 勢所然也. …… 降自漢唐則名儒巨公, 不爲不多, 而其言之詳, 僅見於史氏及碑誌者, 亦甚鹵莽矣. 至朱夫子序伊洛諸賢, 而始有所謂遺事者, 以備其未備, 然後周·程·張·邵之全體, 得以躍如, 而人得以見之矣. 其於諸子, 亦皆用此例, 不惟其人之全可見, 而其爲書也亦全矣.”

불초 소생이 생각해보건대, 先考의 뜻과 행적이 혹시라도 선생의 칭찬을 입어 간략하나마 몇 줄의 글로 위여 묘도에 게시하여 후세에 알릴 수만 있다면, 世道에 만에 하나라도 도움이 없지 않을뿐더러 선생의 성대한 덕은 하늘이 다 하도록 끝이 없을 것이고, 선고의 이름도 따라서 먼 훗날까지 증명될 터이니, 어찌 자손들만 큰 은혜를 받게 되겠습니까? 선고께서도 황천에서 불행함을 한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일 ‘사소한데도 기록하는 것은 孔子의 범례에 속하지 않으니, 이는 붓을 댈 것이 못 된다.’고 하신다면, 이는 소생이 감히 알 바가 아닙니다.¹²⁾

송시열이 金尙憲(1570~1652)에게 부친 宋甲祚(1574~1628)의 묘도문을 지어줄 것을 부탁한 편지글의 일부이다. 이 편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묘도문 찬술의 첫째 이유는 묘주의 존재를 ‘후세에 알리는’ 것이지만, 단순히 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즉, ‘성대한 덕을 지닌’ 사람의 ‘칭찬’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世道’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망자의 원한을 풀고 후손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 글은 찬술자의 조건과 찬술의 목적 및 서술방향, 그리고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까지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후손 입장에서는 선친의 생애를 최대한 아름답게 드러내보고자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명망가의 손을 빌려[권위] 제한된 면적에 기록하여[압축]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노출하게[공시] 되므로, 역사기록 못지않게 많은 제약을 안게 된다. 그러나 역사기록이 전방위적인 검열의 대상이 됨에 비해 묘도문은 청탁자와 찬술자를 포함한 일부 집단 내부의 검열에 국한된다는 점이 다를 따름이다. 송시열은 청탁자의 의견이 수용 가능한 것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개작을 마다하지 않았던

12) 송시열, 「上淸陰先生」(丙戌正月十一日), 『송자대전』 권27. “不肖以爲先考之志行, 倘蒙先生之嘉賞, 略綴數行文字, 使揭墓道, 以告後世, 則或不能無補於世道之萬一, 而先生之盛德極天無窮, 則先考之名, 亦隨而徵信於久遠矣, 豈惟子孫並受不貲之恩哉? 抑亦先考不恨其不幸於泉壤之下矣. 若曰, ‘微而見書, 非夫子凡例, 此不足以泚筆.’ 則非小生之所敢知也.”

것은 묘도문이 여타의 개인적 창작물과 같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³⁾ 이처럼 찬술 과정에 타자의 참여를 허용하게 되자 묘도문에 관한 담론도 자연스럽게 다양화되었는데,¹⁴⁾ 여기에는 묘주의 호칭이나 자구의 표현 등 미묘하고 감각적인 부분도 포함되곤 했다.¹⁵⁾

이 글에서 묘도문에 대한 송시열의 입장을 이렇게 소개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송시열은 압도적인 분량의 비지문을 지은 작가였을 뿐만 아니라¹⁶⁾ 이에 관한 견해도 풍부하게 남겼다. 또한 노론의 종장으로써 그의 정치적·학문적 견해가 김창협을 거쳐 이의현에게 계승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의현의 경우, 200편에 육박하는 묘도문을 남겼지만 묘도문 자체에 관한 의견은 그다지 많이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문집에 산재한 편린들을 짜 맞추면 송시열의 태도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의현은 李縉(1678~1746)에게 선친 李世白(1635~1691)의 신도비를 부탁하였는데, 그때 보낸 편지에서 ‘大節만 드러내고 긴요하지 않은 이력이나 자잘한 일들은 모두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¹⁷⁾ 또 金在魯

13) 송시열, 「答宋明甫」(丙申), 『송자대전』 권30. “鄭老文字, 一依所戒耳. 此事不厭詳實, 不然則非唯作者無義, 死者亦不安矣, 嘗怪畸翁見議輒怒也. 以朱夫子, 尚有愈改愈好之訓, 況其餘人, 敢守一定之說乎? 此外未安處, 些少者則便改之, 商量者則商量之, 期於無類.”

14) 이는 묘도문의 찬술이 숙종조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되는 데 긴요하게 작용했다.

15) 宋象賢의 신도비를 찬술하는 과정에서 宋浚吉에게 의견을 물은 것이 이런 경우이다. 宋時烈, 「與宋明甫」(己亥), 『宋子大全』 권30. “泉碑, ‘爲詩以祭’有無, 元不緊, 刪去, 而‘表’下添‘焉’字, 如何? ‘擔舁’, 如有明據, ‘下馬致敬’下, 添‘而使其士卒擔舁以送’九字, 可也.”

16) 『宋子大全』에는 神道碑 96편, 碑(廟庭碑, 碑陰記, 遺墟碑, 旌閭記) 25편, 墓碣(銘) 108편, 陵誌 3편, 墓誌(銘) 73편, 墓表 246편 등 모두 551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宋子大全拾遺』에 7편, 『宋子大全續拾遺』에 1편이 실려 있어, 이 모두를 합하면 559편에 달하며 그 외에도 문집에 수록되지 않은 글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시열 비지문에 관해서는 정경훈(2003)·박관규(2011) 참조.

17) 李宜顯, 「與李熙卿」, 『陶谷集』 권31. “人家求此等文, 必以費辭繁細爲尙, 而鄙見不如此. 舉其大者闡揚之, 不緊履歷細小事行, 皆從刊落.”

(1682~1759)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자신이 지은 묘갈의 의도를 설명하며 지나치게 찬미하는 세태를 통탄하기도 했다.¹⁸⁾ 쇠세함과 과장됨을 경계한 이 두 편의 글은 언뜻 보면 송시열의 입장과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서로 통한다. 즉, 이의현은 과장된 찬미는 오히려 묘주를 욕되게 할 뿐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묘주를 욕되지 만들지 않는 것이 묘주는 물론 후손에게도 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려면 결국 누구나 공감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세심하게 선택하고 세련되면서도 간결한 문체로 표현해내야 하지만, 그 선택과 표현이 청탁자까지 만족시키기 어려울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찬술가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청탁자를 흡족케 하고 제3의 잠재적 독자들까지 수공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야 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설득과 수용, 선택과 타협이라는 수사학적 고려가 부상하게 된다.

Ⅲ. 이의현 묘도문의 다층적 성격

1. 개성의 희석 : 개인 창작과 협동 창작

景宗 시해를 음모했다는 고변으로 함경도 운산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1722년, 이의현은 權煜(1658~1717)의 묘갈문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앞서 孟萬澤(1660~1710)의 묘도문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였던 터라 이 역시 사양하고자 하였으나 권옥의 부친 權尙夏(1641~1721)의 부탁 때문에 결국 묘갈문을 짓게 되었다. 이의현은 이 묘갈문을 찬술하는 과정에서 김재로와 서신을 주고받았는데, 이는 권옥과의 교분이 두터웠던 김재로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였다.¹⁹⁾ 이때 김재로에게 보낸 편

18) 이의현, 「與金仲禮」(제2서), 『도곡집』 권31. “近日金石文, 例多溢美, 鄙心竊嘗痛之. 故此又務加稱停.”

지에는 이의현 자신의 집필의도가 조목조목 드러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고의 활용, 속어와 상투어의 표현, 구법의 차용 등에 관한 견해가 특히 눈길을 끈다.

『陶谷集』에 수록된 권옥의 묘갈문에는 송시열이 권옥에게 字를 지어 주며 ‘屏山誨木’의 뜻을 거듭 말했다는 내용이 있다.²⁰⁾ ‘誨木’은 劉子翬(1101~1147)가 朱熹(1130~1200)에게 자를 지어주면서 ‘나무는 뿌리를 잘 감추어야 봄에 잎이 무성해지고, 사람은 몸을 잘 감추어야 정신이 안에서 살핀다’고 축원한 것을 가리키는데²¹⁾, 이의현은 이 글과 “佩韋遵父訓, 晦木謹師傳”라는 주희의 聯句를 근거로 ‘晦木’이라고 썼던 것이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 김재로는 ‘誨木’으로 쓸 것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현은 이보다 ‘晦木’이 더 타당하다고 하였다.²²⁾

한편 이 묘갈문에는 “수령이 새로 부임할 때마다 ‘貰馬錢’을 민간에서 거두어들여곤 했는데, ‘그 액수가 적지 않았다’. 공은 ‘나는 집이 가까워 말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으니, 어찌 세마전을 쓰겠는가.’라고 하고는 모두 없었다.”²³⁾는 구절이 있다. 속어로 ‘刷馬錢’이라고도 하는 ‘貰馬錢’은 사신의 왕래나 진상품의 운반 또는 지방관의 교체 등의 필요에 의해

- 19) 이의현, 「與金仲禮」(제2서), 『도곡집』 권31. “昨年, 孟施仲之子托以墓文, 此等事非如我者所可爲, 還送其狀而辭却之矣. 權幼晦家又有所請, 無論他事, 辭彼受此, 有取捨之嫌, 尤涉不當, 故以此固辭, 而彼家以有遂翁遺命, 堅不聽, 不得已僅僅草成, 而素短之文, 猝難自強, 殆不成文理. 台見之, 必大笑絕纓矣. 然不可不取正於高眼, 故敢以奉覽, 幸痛加繩削以送. …(중략)…台亦熟此兄矣, 如有過不及處, 亦斤示之如何?”
- 20) 이의현, 「善山府使權公墓碣銘并序」, 『도곡집』 권13. “弱冠, 出入尤菴先生門下, 尤菴先生深加愛重, 爲命其表德, 申以屏山誨木之意, 公益感勵躬躬砥行, 思不負知遇.”
- 21) 朱熹, 「名堂室記」, 『晦菴集』 권78. “屏山獨嘗字而祝之曰: 木晦於根, 春容燁敷; 人晦於身, 神明內腴.”
- 22) 이의현, 「與金仲禮」(제3서), 『도곡집』 권31. “誨木, 朱子詩曰‘佩韋遵父訓, 晦木謹師傳.’ 以此觀之, 晦字似是矣.”
- 23) 이의현, 「善山府使權公墓碣銘并序」, 『陶谷集』 권13. “守令新到, 例收貰馬錢於民間, 其數不貲. 公謂吾家近, 不勞馬, 烏用是爲哉? 悉除之.”

말을 빌려 쓴 대가로 지불하는 값을 뜻한다. 그런데 이의현은 초고에서 ‘刷馬’라는 용어를 썼고, 이에 대해 김재로는 ‘貫馬’로 고칠 것을 주문했다. 편지 내용으로 보면 이의현도 ‘刷馬’가 속어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문에도 속어를 사용한 예가 흔히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였다.²⁴⁾ 속어 사용을 옹호하는 태도는 『陶峽叢說』에서도 발견된다. 정미환국으로 파직된 뒤 楊州 陶山에 우거할 때 쓴 이 글에서 이의현은 ‘근래의 공문서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해서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묘도문에 얽힌 일화 하나를 소개하였는데, ‘一等’이란 표현을 문제 삼은 사람에게 韓愈(768~824)의 「鄭羣誌」에서도 ‘上等’이란 글자를 쓴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上等’은 한유의 글에 있으니 쓸 수 있지만 이것은 쓸 수 없다”고 하여 쓴웃음을 자아냈다는 것이다.²⁵⁾

한편 ‘其數不貫’, 즉 ‘그 액수가 적지 않았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서로 의견이 달랐다. 편지에 따르면 원래 ‘二百’이라는 액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이는 상투적인 표현을 피하고자 하는 작문관이 반영된 것으로, ‘간결함에 힘썼던 한유도 반드시 그 숫자를 언급하였다’고 한 뒤, ‘적지 않다[不貫]’고 하거나 ‘지나치게 많다[過多]’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상투’라고 비판하였다.²⁶⁾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묘도문의 장르적 규범에 관한 견해차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김재로는 이의현의 묘갈문이 ‘옛날에는 없는 구법’

24) 이의현, 「與金仲禮」(제3서), 『도곡집』 권31. “刷馬雖俗語, 俗語用於古文, 古多有之, 似不必太拘, 而來示貫字亦好, 當依改.”

25) 이의현, 『陶峽叢說』; 『도곡집』 권28. “近來公家文字, 亦不必避而不用也. 上自秦·漢, 下至韓·歐, 時俗例用之文字, 皆不避焉, 俱可檢看也. 余曾作人墓文, 用一等語, 蓋一等者, 我國科場等第之稱也, 近來尙古者見之, 大驚以爲疵. 余披昌黎「鄭羣誌」上等二字以示之, 其人曰: “上等既有昌黎文字, 可用, 此則不可用.” 其膠固可笑如此”

26) 이의현, 「與金仲禮」(제3서), 『도곡집』 권31. “二百字, 古人碑誌, 凡於此等處, 必言其數. 如韓碑文字務簡, 而於此等處則必明言之. 獨東文不如此, 或稱不貫, 或稱過多, 此反涉套語, 鄙甚厭之. 故明言其數矣.”

이라고 하였던 모양이다. 이에 대해 이의현은 자신의 묘갈문이 王安石(1021~1086)의 「度支郎中葛公墓誌銘」의 구법을 차용한 것임을 밝히는 한편, 표현방식에 변환을 줌으로써 모의를 피하였다고 하였다.²⁷⁾ 이의현이 차용했다고 밝힌 구법이란 대개 글의 뒤에서 서술하기 마련인 묘주의 世系와 生卒, 配位, 後嗣 등을 앞으로 끌어오는 한편 각각의 句式도 ‘공의 휘는 焜이다’라는 일반적인 구식 대신 ‘焜은 공의 휘다’로 도치시킨 것²⁸⁾과, 관력·학문·공적·덕행 등을 나누어 서술하면서 각각의 서술이 끝날 때마다 ‘이것이 공의 관력이다’와 같은 표현을 써서 매듭지은 것을 말한다.²⁹⁾ 이의현은 고인의 체제를 본받아 글을 지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모의가 아닌 작가 자신의 글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³⁰⁾ 즉, 자구를 모의할 것이 아니라 그 意格을 창조적으로 계승함으로써 ‘本色이 自在한’ 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³¹⁾ 이러한 이의현의 태도는 虛字와 고문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7) 위의 글. “至於句法無於古云云, 王荊公葛郎中誌, 正用此法, 而文字裁剪, 不盡如此. 若一從其法, 長短大小, 無少參差, 則乃是摸擬之甚者. 非但僭猥, 亦是文字之病, 故如是而已矣.”

28) 이의현, 「善山府使權公墓碣銘并序」, 『도곡집』 권13. “權, 公之姓也; 焜, 公之諱也; 安東, 公之氏出也. 遂菴先生官議政府左議政諱尙夏, 公之考也; 司憲府執義贈領議政諱格, 公之祖考也; …(중략)… 餘並幼者, 公之子姓也.”

29) 관력, 학문 연원, 공적, 생애의 총평 등 네 가지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각 단락의 마지막에 ‘此公之官歷也’ ‘此公之修於家若師資淵源者也’ ‘此公政績之施於民者也’ ‘此又公之平生懿聞, 爲人所稱道者也’란 표현을 써서 마무리짓고 있다. 왕안석 묘지명의 차용에 관해서는 정순희(2004)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다.

30) 이의현, 『陶峽叢說』; 『도곡집』 권28. “作文者當以古人之體裁, 作吾之文字, 使人之觀者知其爲作文人之文, 而俗下庸鄙之習, 則痛去之足矣, 何必一一摹擬哉.”

31) 위의 글. “漢人未嘗摹擬六經之文, 昌黎亦未嘗摹擬馬·班之文. 歐·曾未嘗摹擬昌黎之文. 但用其意格而已, 其爲漢爲韓爲歐爲曾本色自在矣. 若只就古文字句, 切切摹擬, 而不敢自吐出胸中一語, 則反成局澁單薄. 有似着優人假面, 眞形不存, 何足尙哉.”

세속에서는 ‘而’나 ‘之’자를 드물게 쓰는 것을 簡古하다고 여기니, 이것은 한 쪽에 집착한 고루한 견해이다. 예스럽기로는 선진의 六經과 西漢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장자』·『열자』·『국어』·『전국책』·『사기』 등의 글에도 虛字가 매우 많으며, 『논어』·『맹자』·『예기』도 마찬가지다. 어찌 ‘而’나 ‘之’ 자의 많고 적음으로 그 글이 예스러운지 아닌지를 정할 수 있겠는가? 이후에 昌黎의 글은 진실로 허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곳도 있지만 허자를 사용한 곳도 많으니, 이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린 것이다. 비유한다면 집을 짓는 사람이 재목의 길고 짧은 것을 각각 마땅하게 사용한 후에 집의 체제가 성립된 것과 같으니, 만약 천편일률적으로 짧은 것만 사용한다면 어찌 체제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근래에 글 짓는 이를 보면 여기에 빠져서 힘써 자구를 재단하고 짧게 하여 蹇澁하고 枯颯하여 말이 통창하지 못한 것이 많아 불만한 자신만의 風神이 전혀 없으니, 옛것을 잘못 배웠다고 할 수 있다.³²⁾

글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일 뿐인 허자에 집착해서야 어떻게 ‘風神’이 생동한 글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이 글의 골자다. 고문은 허자를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에서 가름된다는 이의현의 입장은 전범적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라는 문제와 맞닿아있다. 이의현이 지적한대로 허자 한 가지로 선진양한의 고문과 펴진한 문체를 구현할 수는 없다. 그러나 柳夢寅(1559~1623)이 허사의 과도한 사용을 우려했던 것³³⁾처럼 복고를 지향하는 문장가들에게 허자는 중요한 문제였다. 이의현이 지적하고자 한 것은 허자와 고문이 아무런 상관이

32) 위의 글. “世俗以罕用而之字爲簡古, 此乃局滯固陋之見也. 古莫如先秦六經西京之文, 而『莊』·『列』·『左』·『國』·『國策』·『史記』等書, 最多虛字, 『論』·『孟』·『禮記』亦然. 豈以而之字多少, 定其文之古不古乎. 後來昌黎之文, 固有絕不使虛字處, 而其用虛字者亦多, 此只在用之之如何耳. 譬如作室者用材, 長短各隨其宜, 然後方成室屋體制, 若一例用其短, 豈復成體制乎. 近見爲文者泥於此, 務爲截短字句, 蹇澁枯颯, 語多不暢, 絕無風神生色之可觀, 可謂不善學古矣.”

33) 柳夢寅, 「答年兄林公直書」, 『於于集』 권5. “試觀今之文, 以之而其於乎也以屬辭, 一句三用語助, 使人讀之也, 其句讀流於唇吻, 用是捷巍科華一國者何限? 雖然, 其施於一時則得矣, 其如傳世壽後何?”

없다는 것이 아니라 허자를 절대시하는 풍조이다. 허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문장은 ‘蹇澁’하고 ‘枯癯’하기만 할뿐, 결코 고문과 같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범과 똑같아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전범을 창조적으로 변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이의현 고문론의 핵심이다.

「선산부사권공묘갈명」은 바로 이러한 고문관이 바탕이 된 글이다. 비록 「탁지낭중갈공묘지명」을 차용했지만 이의현 자신의 ‘風神’이 드러나도록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탁지낭중갈공묘지명」이 관력을 전체적으로 개괄한 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분절하여 서술하는 방식을 취했음에 비해 세계·관력·학문·공적·덕행 등 묘도문이 갖추어야 할 정보들을 균형감 있게 안배한 점이나 속어를 과감히 사용하고 상투적인 표현을 피하고자 한 점 등이 바로 이러한 고심의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이 편지에는 묘주의 호칭에 관한 문제, 부친 권상하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 집안 어른들에 대한 효행과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날 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문제, 逸話를 추가하여 덕행을 강조하는 방안 등에 대한 언급도 보이는데³⁴⁾, 최종 완성된 묘갈문을 보면 왕안석의 구법을 변용한 점 이외의 모든 쟁점에서 김재로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 속어의 사용, 상투어의 배격, 편장의 유연한 구성 등 세 가지 쟁점에 관한 한 상당히 확고한 태도를 견지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다소 의외의 결과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이 글이 완성되기까지 다른 어떤 변수가 더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결국 김재로의 의견을 상당수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묘도문이 전적으로 찬술자의 의지대로 쓰여지기 어려운 글임을 보여준다.

34) 이의현, 「與金仲禮」(제3서), 『도곡집』 권31. “嘗觀先輩文字, 既稱先生, 則中間隨其文勢, 或稱公無定例, 故如是下語矣. 若礙眼則當依示改之. 又字臬兀云者, 更看誠然矣. 被先生詩禮之訓云者, 誠好其下當以若干句承之矣, 如是則雖不別爲贊揚遂菴道德, 亦無妨耶? …(중략)… 晨昏一句當去之, 以所示潤色改下至訣下. 亦依添寓公, 曾聞宋姓士人煒之姓族云耳.”

2. 서사의 개입 : 형상성 제고를 위한 문체적 차용

앞서 거론한바와 같이 이의현은 지나친 과장과 수식을 경계했다. 과장과 수식을 경계했다는 것은 삶의 다양한 면모와 평가를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전한다는 것과 뜻이 통한다. 하지만 ‘찬미’라는 의도성이 개입하게 마련인 묘도문의 속성상 어느 일부분만을 특별히 강조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宣祖 연간의 무장으로 좌의정에 추증된 李鑑(1538~1601)의 신도비가 그런 경우이다. 이 글은 거의 대부분을 尼湯介의 난과 왜란에서의 활약상을 서술하는데 할애하였는데, 행적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술한 이유는 서문의 끝에서 드러나는데, ‘韓愈가 韓弘의 신도비문을 지을 때 자신과 같은 宗人이기 때문에 그 사적을 특별히 자세히 서술하였다고 하였던 것처럼 자신도 관향이 같은 이일의 사적을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자세히 기록하였노라’고 하였다.³⁵⁾ 그러나 이것이 이유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비지문에서 찬술자가 특별히 부각시키고 싶은 행적이 있을 경우, 상소문의 내용을 옮긴다든지, 저명한 인물과 나눈 대화나 일화를 삽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나타내는 것은 굳이 찬자와 청자의 관계가 각별하지 않더라도 흔히 사용되는 수법이기에 때문이다. 따라서 종친이라는 이유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 즉 송시열이 묘도문의 효용으로 제시한 ‘補世道’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글에서의 ‘補世道’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무장의 삶을 통해 비운의 역사를 환기하고 국가에 헌신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를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史傳文과 유사한 서사방법을 택한 것이다. 사실 인물의 행적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묘도문은 사전문과 매우 닮아있다.³⁶⁾ 이의현의 스승 김창협이 『雜識』에서 비지문에 대

35) 이의현, 「巡邊使壯襄李公神道碑銘并序」, 『도곡집』 권10. “不佞即公之宗人也, 微子言, 固將表章之不暇, 其敢辭旃! 遂取其所爲狀, 櫟括而爲之叙. 昔韓文公撰許國公碑, 以其同宗也, 叙事特詳. 今余於公前後戰功, 悉書具載, 不避煩絮者, 盖亦韓公之意也.”

해 언급할 때 사전문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많았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碑誌는 史傳과 문체가 대체로 같다. 그러나 史傳은 ‘該瞻’을 위주로 하는 반면 碑誌는 오로지 ‘簡嚴’을 위주로 한다. 그래서 한유 비문의 敘事가 『사기』나 『한서』와 크게 다른 것이니, 단지 문장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체제도 당연히 그런 것이다. 歐陽公이 司馬遷의 문장을 배웠지만 碑誌를 지을 적에 史傳體를 전적으로 쓰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³⁷⁾

인물의 행적을 서술한다는 점에서는 묘도문과 사전문이 동일하다. 하지만 사전문은 독자가 사건이나 인물을 입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므로 ‘該瞻’해야 하지만, 묘도문은 찬술자가 독자에게 인물의 공적이나 덕행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簡嚴’하게 기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창협은 韓愈와 歐陽脩(1007~1072)의 묘도문이 각각 다른 특징을 띠게 된 것도 바로 이 사전문의 서사성을 얼마나 본받았느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글에 잘 나타난다.

鹿門이 『八大家文鈔』에서 말하기를, “세상에서 韓公의 문장을 논하는 사람들은 모두 碑誌를 으뜸으로 꼽는다. 하지만 나는 도리어 한공의 비지는 奇崛하고 險譎함이 많아 『사기』와 『한서』의 서사법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혹 風神에 있어 힘차고 빼어남이 부족한 듯하다. 그러나 歐陽公의 비지문은 司馬遷의 정수를 얻었다고 할 만하다.” 라고 하였다. 녹문의 이와 같은 논의는 그럴 듯하다. 그러나 碑誌와 史傳은 비록 동일하게 敘事하는 글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 체제

36) 황의열(2006)은 비지류·전장류·애제류 가운데 한 개인의 일생, 혹은 일생의 한 국면을 서술한 글을 묶어 ‘記人文學’으로 총칭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37) 金昌協, 『雜識』; 『農巖集』 권34. “碑誌與史傳, 文體略同, 而史傳猶以該瞻爲主, 至於碑誌, 則一主於簡嚴. 故韓碑敘事, 與『史』·『漢』大不同, 不獨文章自別, 亦其體當然也. 歐陽公雖學司馬遷, 而其爲碑誌, 猶不盡用史傳體, 亦以此耳.”

는 시로 동일하지 않다. 더욱이 한공의 문장은 세상에 이름을 날렸으니. 사마천의 『사기』를 꼭 모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가 비지문을 지은 때는 한결 같이 嚴約하고 深重하며 簡古하고 奇奧한 것을 주로 삼았으니, 대개 『상서』와 『좌씨』에 근본을 두었던 것이다. 천고의 금석문자는 이것을 조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니, 어찌 꼭 사마천의 풍신만을 찾을 것인가? 그러나 그가 서사한 곳에는 왕왕 일종의 살아있는 듯이 빛을 내는 곳이 있기는 하다. 다만 한결같이 유려하고 활달하게 써 내려감으로써 簡嚴한 체제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이다. 歐公의 경우는 그 문장의 기조가 본래 태사공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 비지의 서사에 그 풍신을 많이 얻었다. 하지만 전형은 또한 한유에 근본을 두었으니, 『사기』와 『한서』의 문체를 다 썼던 것은 아니다.³⁸⁾

한유의 묘도문은 『상서』와 『좌전』에 뿌리를 두었으므로 ‘嚴約’ ‘深重’ ‘簡古’ ‘奇奧’함에 반해 구양수의 묘도문은 『사기』와 『한서』를 근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風神이 생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무엇을 작문의 규범으로 삼았느냐에 따라 문장의 체제가 현격하게 달라진다는 주장은 사실 당시의 산문논의 속에서 일종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진 이론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구양수가 비록 『사기』와 『한서』를 배우기는 했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쓰지는 않았다고 한 부분이다. 묘도문에 서사성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으나 그것이 묘도문의 본질적 성격을 저해할 정도로 지나쳐서는 곤란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巡邊使壯襄李公神道碑銘并序」의 경우, 비록 사전문의 체제를 상당 부분 원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김창협의 인식

38) 위의 글. “鹿門八大家文鈔論云, 世之論韓文者, 共首稱碑誌. 予獨以韓公碑誌, 多奇崛險譎, 不得史·漢序事法. 故於風神或少適逸. 至於歐陽公碑誌之文, 可謂獨得史遷之髓. 鹿門此論似然矣. 然碑誌·史傳, 雖同屬敘事之文, 然其體實不同. 況韓公文章命世, 正不必摸擬史遷. 其爲碑誌, 一以嚴約深重簡古奇奧爲主. 大抵原本尚書左氏, 千古金石文字. 當以此爲宗祖, 何必以史遷風神求之耶? 然其敘事處, 往往自有一種生色. 但不肯一向流宕, 以傷簡嚴之體耳. 若歐公則其文調本自太史公來. 故其碑誌敘事, 多得其風神. 然典刑則亦本韓公, 不盡用史·漢體也.”

에 부합하는 작품이다. 왜냐하면 서두에서 『시경』을 인용해 묘주를 생애를 총괄하고 이 글이 어떤 내용을 담게 될 것인지 짐작케 한 점이라든지, 니탕개와 々尼應介의 변란을 진압한 부분과 왜란에서의 활약상을 서술한 부분 뒤에 그 공적으로 어떤 평가와 포상을 받았는지를 밝힌 점 등이 사전문의 체제에 경도되는 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을 떼어놓고 본다면 사전문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다음 글이 이에 해당한다.

나라를 배반한 鞠敬仁이란 백성이 두 왕자와 공의 부자를 포박하여 가등청정에게 바쳤다. 공은 매우 분통을 터뜨리며 품고 있던 단도로 자결을 시도하였고, 또 목매 죽으려고도 시도하였으나 왜적에게 발각되었다. 왕자 또한 자결하지 말라고 유시하였으므로 결행하지 못하였다.

얼마 후 가등청정이 부사관을 보내 공을 끌어내게 하고, “만약 나에게 굴복한다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협박하였다. 그러자 공이 대답하기를, “나는 본래 죽기만을 바라는 사람인데 어찌 굴복을 하겠는가?” 하였다. 그러자 마침내 적들이 검을 빼들고 죽일 듯이 위협하였으나 공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또 부사를 시켜 “항복하지 않으면 내 장자 왕자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하였다. 공이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네가 너희 나라의 군주를 폐위시킨 데다가 천자를 배반하고 남의 나라 백성을 죽였는데, 지금 또 우리 왕자까지 죽인다면, 나는 네가 패망하는 것을 기어이 볼 것이다.” 하였다. 이때 왜구는 공을 빨리 항복시키려는 생각이었지 반드시 왕자들을 죽일 생각은 아니었으므로 한참 있다가 그만 두었다.

이듬해 京城에 도착하자 가등청정이 공의 어린 손자를 끌어다가 공의 앞에 두고 검을 뽑아 손자의 머리에 대고는 공을 협박하였다. 이때 겨우 8세가 되었던 공의 손자는 놀라고 두려워 공을 바라보며 울었지만 공은 오히려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가등청정이 크게 노하여 검으로 손자의 목을 베어 죽이고는 검을 휘두르며 공을 향해 겨누었으나 공은 꺾이지 않아서 뜻을 더욱 굽히지 않았다. 이에 가등청정도 공의 절개가 뛰어남을 인정하고 부관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굴복시키기 어려운 사람이구나!” 하고는, 이때부터 공의 官名을 부르고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³⁹⁾

黃赫(1551~1612) 신도비문의 일부다. 황혁은 임진란 때 부친 黃廷彧(1532~1607)과 臨海君과 順和君을 호종하였다가 왜에 사로잡힌 뒤 항복을 권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유배된 인물이다. 위에 인용한 부분은 왜장 加藤清正(1559~1611)의 협박에 의연하게 대처한 모습을 묘사한 부분으로, 대화체를 사용하여 마치 옆에서 지켜본 듯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의현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자세히 기술한 것일까? 이때 황혁은 두 왕자를 지키기 위해 항복을 권하는 글을 쓸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리는 글을 따로 써서 몰래 보냈다. 그러나 그 혐의를 벗지 못하고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柳成龍(1542~1607)을 비롯한 東인들이 개입되어 있었다. 윤근수를 비롯한 서인들이 황혁 일가의 신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으며, 결국 황혁은 李爾瞻(1560~1623)의 무고로 인해 옥사하였다.⁴⁰⁾ 이런 점에서 볼 때, 황혁의 생애를 서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왜적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의현은 이 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기에, 허사를 제한적으로 사용한 대화체와 속도감 있는 전개방식을 활용해 『사기』나 『한서』 열전의 한 대목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했던 것이다.

이처럼 황혁의 신도비문이 주로 구법의 측면에서 사전체 문장을 활용하고 있다면 宋圖南(1576~1627) 신도비문은 편장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전체 문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이다.

39) 이의현, 「贈左贊成獨石黃公神道碑銘并序」, 『도곡집』 권11. “叛民鞠敬仁縛二王子及公父子, 獻清正. 公感憤懷刃欲自殺, 又自經, 爲賊所覺, 王子亦諭解, 不果. 已而, 清正遣其副, 牽公出喝曰: “若屈於我, 當不死.” 公曰: “吾固死是求, 屈何有焉.” 賊遂舉劍擬之, 公不動. 又使副喝曰: “不降, 吾且殺王子.” 公罵之曰: “汝廢汝國君, 畔背天子, 滅人之國, 今又殺我王子, 吾見汝將覆亡也.” 時倭欲趣降公, 殊無必殺王子意, 良久乃已. 明年至京城, 清正牽公幼孫置公前, 拔劍臨幼孫首以脅公. 幼孫始八歲, 驚懼視公泣, 公猶不動. 清正大怒, 劍斬幼孫, 已揮劍嚮公, 公踞坐, 意益倨. 於是清正亦奇其節, 語其副曰: “難哉此人.” 自此稱其官, 不名也.”

40) 이에 관해서는 尹根壽, 「芝川壽序」(『月汀集』 권5)에도 소상히 서술되어 있다. 김우정(2011) 참조.

정월 21일 새벽, 적들이 나무 사다리를 이용해 성을 침범하였다. 南公은 이미 성이 함락되고 말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성의 남쪽은 낮고 북쪽은 높으니 반드시 남쪽으로부터 함락될 것이라 판단하고, 공에게 북쪽을 지키게 하고 또 철갑옷을 보내 주었다. 공은 철갑옷을 나무 위에 걸어놓고 말씀하기를, “성이 함락되려 하는데, 철갑옷을 입고 몸을 보호하여 무엇하겠는가.” 하였다. 처음에 공이 安州로 달려갈 적에 두 아들을 불러 대면하고도 집안일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손수 ‘남아의 사업이 오늘 결판난다(男兒事業, 今日決矣)’라는 여덟 글자를 써서 집에 보내었다.

이날 저녁에 적들이 사다리를 타고 개미떼처럼 성에 붙어 올라오자, 우리 병사들이 창검을 가지고 대적하였다. 그러나 衆寡不敵으로 잠깐 사이에 적이 이미 성안에 가득하여 사람들을 마구 죽여서 시신이 낭자하였다. 남공과 김공은 일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마침내 염초와 유향에 불을 질러 스스로 불타 죽었다. 군사와 백성들이 어지럽게 달아나자 적들이 모두 몰아 魚肉을 만드니, 항복하는 자들이 서로 이어졌다. 공은 戰袍를 입고 성 머리에 서서 활을 당겨 적을 쏘고 있었는데, 적이 쏜 화살이 공의 불에 맞아 피가 줄줄 흘러 얼굴을 뒤덮었다. 그러나 공은 얼굴빛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천천히 차고 있던 佩刀를 뽑아 옷을 찢어 상처를 싸매고는 죽을 때까지 활을 놓지 않고 싸웠다. 적의 화살이 고슴도치 털처럼 공에게 쏟아져 마침내 성가퀴 위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僮人인 金承李와 縣屬인 韋典 등이 공의 시신을 수습하여 화살을 가지고 초혼하였으니, 향년 52세였다.⁴¹⁾

송도남은 문관으로 정묘호란 때 安州에서 後金의 군대를 맞아 싸우다가 전사한 인물이다. 위는 바로 안주 전투에서 숨을 거두기까지의 과정

41) 이의현, 「贈禮曹參判宋公神道碑銘并序」, 『도곡집』 권10. “正月廿一日曉, 賊以木梯犯城. 南公已慮城必陷, 城南低北高, 陷必自南始, 令公守北, 且遺鐵衣. 公掛之樹上曰: “城將陷矣, 衛身何爲.” 始公將赴安州, 招二子面之, 無一語及家, 至是手書‘男兒事業今日決矣’八字以貽家. 是夕, 賊攀梯蟻附, 我兵用槍劍相搏, 勢不能敵. 俄頃, 賊已彌滿, 鑿殺狼藉. 南·金二公知事不濟, 遂放火硝黃自燒死. 軍民散亂, 賊悉驅而魚肉之, 降者踵相接. 公着戰袍, 立城頭, 彎弧射賊, 賊射中公頰, 血淋漓被面. 公色亡變, 徐拔佩刀, 斫衣裹瘡, 至死終不釋弓. 賊矢如蝟集, 公遂枕堞而絕, 僮人金承李·縣屬韋典等, 收公屍, 以矢復之, 享年五十二.”

을 묘사한 부분인데, 최후를 향해 치달러가는 전장의 분위기와 순국을 각오한 장수의 비장미가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미 막다른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깨달은 병마절도사 南以興(1576~1627)이 문관으로써 전쟁에 참여한 송도남을 위해 철갑옷을 건넨 장면, 방어선을 뚫고 난입한 후금의 군사들에 의해 유린당하자 남이흥과 안주목사 金浚(1582~1627)이 분신한 일을 차례로 서술한 뒤, 적병의 화살이 ‘고슴도치 털처럼’ 온몸에 꽂혀 죽을 때까지 분전한 송도남의 모습과 옷을 구하지 못해 화살을 가지고 招魂하였다는 상황까지 비장미가 극대화되도록 장면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가운데 전투에 참전하기 직전 두 아들과 작별하는 자리에서 한 말을 삼입함으로써 목숨을 버릴 각오가 이미 되어있었음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 글 앞에는 송도남이 이이첨을 비롯한 대북파의 전횡에 맞섰다가 미움을 받아 주로 庶族의 자제들에게 배속되는 교서관에 임명되고 평안도 평사로 좌천되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이에 불만을 품었던 송도남이 청병하여 부임하지 않자 탄핵하여 결국 영유현령으로 좌천되었고, 이때 정묘호란이 발발하는 바람에 결국 비장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이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정황을 서술의 축으로 삼아 전개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단지 국가에 대한 충절이라는 보편 서사 속에 의리 서사라는 17세기적 서술태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파적 이해특실에 의해 희생된 인물이라는 점을 일깨움으로써 정치사적 입장을 표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품의 전체 구조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이 글에서는 이의현이 선친의 묘지명을 부탁할 때 ‘大節’을 강조하였음을 지적한바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예들을 통해 드러나듯이 이 ‘大節’은 단지 삶의 줄거리를 요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찬술자의 의도에 의해 세심하게 선택된 국면을 뜻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배타적 시선 : 집단적 이해관계의 작동

묘도문 속 묘주의 삶은 결코 제3의 독자들에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시선만을 제공하지 않는다. 독자들은 찬술자의 세심한 의도에 의해 구성된 글을 통해 묘주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구성된 삶은 의도된 국면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일방의 편향된 시선이나 평가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경향은 배타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서술할 때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의현은 서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엮여진 숙종~영조 연간을 관통한 인물이다. 김창협과 송상기의 뒤를 이어 양관대제학에 오름으로써 문망과 지위를 동시에 획득한 1725년을 즈음한 시기부터 집중적으로 지어진 신도비의 묘주는, 짐작하다시피, 대부분 서인과 노론에 뿌리를 둔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자연히 그 글은 노론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남인과 소론을 배척하는 수단이 되곤 하였다. 그렇다면 과장과 수식을 경계한 것은 단지 원론적 수사에 불과했던 것일까. 이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의현에게 노론의 당론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론이요, 남인이나 소론의 당론은 부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의현에게 있어서 노론계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묘도문은 왜곡이나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당하고 객관적인 기록이었던 것이다.

처음에 孝廟가 돌아가셨을 적에 여러 儒臣들이 대비의 服을 의논하면서 ‘次適長子는 기년의 복을 입는다’는 禮制를 적용했는데, 흥인인 尹善道가 宗統·嫡統의 설을 만들어 내어 어진 이들을 해칠 계책으로 쓰려 하였다. 성상이 그 간악함을 통촉하고 변방으로 귀양 보내도록 명하였는데, 이때 수찬 洪宇遠이 글을 올려 윤선도를 구원하자, 공이 차자를 올려 논변하고 배척하였다.⁴²⁾

42) 이의현, 「大司憲竹西李公神道碑銘并序」, 『도곡집』 권10. “初孝廟喪, 諸儒臣議大妃服, 用次適葑制, 兇人尹善道册宗統嫡統說, 欲售戕賢計. 上燭其奸, 命竄邊, 至是修撰洪宇遠投章伸救, 上筭辨斥.”

許積이 정사를 전횡하였으나 성상은 깨닫지 못하고 더욱 총애하고 신임하니, 同春이 상소하여 논하면서 허적을 盧杞에 비유하였다. 그러나 성상이 당색이 다른 자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배척하자, 공은 탄식하며 말씀하기를, “내가 국가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매우 크고 또 敎育의 직책을 맡고 있으니, 마땅히 선비들의 기개를 진작시켜 바로 세워야 한다.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소를 올려서 한나라와 당나라의 黨禁의 일을 하나하나 들어서 반복하여 간절히 간하였으나, 관직을 좌천시키라는 명이 내려졌다. 대신과 여러 신하로부터 성균관의 유생들에 이르기까지 번갈아 글을 올려 서울에 머물게 할 것을 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공의 말씀이 하나하나 들어맞자, 사람들은 이를 曲江의 선견지명에 비유하였다. 이 일들은 모두 공이 조정에 있을 때의 언론으로서 사람들의 귀와 눈에 남아있는 것이다.⁴³⁾

위의 글은 李敏迪(1625~1673)의 신도비문 중 예송논쟁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한 것이다. 예송논쟁은 본질적으로는 서인과 남인의 학문적 전통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당시의 정치적 역학구도와도 맞물려 있어 반드시 어느 한쪽이 옳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하지만 서인 입장에서 보면 尹善道(1587~1671)는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한 ‘흉인’일 뿐이며, 許積(1610~1680) 또한 당나라 德宗 때의 간신인 盧杞에 비유해도 좋을만한 인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또한 이민적이 허적에게 맞섰던 일을 ‘曲江의 선견지명’에 비유하고 있기도 한데, 이 말은 당나라 玄宗 때의 재상 張九齡이 安祿山을 주벌하여 후환을 제거할 것을 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반란으로 이어졌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민적이 허적을 견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결국 갑인예송에서 서인이 패배당하는 상황에 내몰렸음을 이렇게 비유한 것이다. 이 글은 이민적 당대의 사건만을 언급하는 데서 머물지 않는다. 이민적의 두 아들 李師命(1647~1689)과 李頤命(1658~1722)이 己巳換局과 辛壬士禍에 각각

43) 위의 글. “積專, 上不悟, 愈加寵任, 同春疏論, 比之盧杞. 上斥以伐異. 公慨然曰: “吾受國恩甚厚, 職又敎育, 當扶植士氣, 其可不言.” 乃上疏, 歷舉漢、唐黨禁事, 反復切諫, 而謫官之命下矣. 大臣諸臣, 以太學章甫, 交章請留, 不能得. 後公言一一符合, 人以比曲江先見. 此皆公立朝言議之在人耳目者也.”

희생되었음을 밝히며, ‘이민적이 살아있었다라면 이러한 화는 애초부터 짝이 트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반성하는가 하면, ‘용과 호랑이가 떠나가면 살쾡이와 드렁허리가 방자하게 구는 법’이라는 극단적인 비유까지 동원하였다.⁴⁴⁾ 이처럼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결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는 주장이나 비유가 용인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학문적 정당성에 대한 집단적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당시 간신이 정사를 독단하고 있어 세도가 막혀 순탄하지 않았으므로, 상기를 마치자 물러나 湖西의 靑陽에 은거하면서 농사를 짓고 글을 읽으며 지내다가, 경신년에 陽復이 되자 비로소 과거에 응시하였다.⁴⁵⁾

吳氏 성을 가진 자가 요직에 앉아 몹시 무례하고 사특하게 굴었는데, 공은 그의 행동을 미워하여 좋지 않게 보았다. 이로 인해 그 사람이 유감을 품고서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던 터에, 마침 중론이 장차 공을 추천하여 진조로 들이려고 하자 마침내 자신의 무리를 사주하여 저지하였다.⁴⁶⁾

김재로의 부친 金構(1649~1704)의 신도비문 중 일부다. 이 글에서도 남인들을 ‘간신’이라 하고, 소론인 吳道一(1645~1703)에 대해서는 아예 ‘오씨 성을 가진 자’란 경멸스러운 표현까지 쓴 반면, 庚申換局으로 노론이 정계에 다시 진출하게 된 일을 ‘陽復’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이의현이 묘도문에서 남인이나 소론이 ‘흉인’이나 ‘간신’으로 호명되거나, 소인과 군자의 선악구도로 묘사한 사례는 빈번하게 나타난

44) 위의 글. “其明年顯廟上陟, 羣兇遂大逞, 至己巳而極, 壬寅而尤酷, 公之兩子前後罹慘而族盡赤矣. 談者以爲‘公而在者, 必能竭誠持危, 使大界清平, 陰翳罔干, 己巳之禍, 初不得萌, 而永無今日之焚焚矣’. 龍虎逝而狸鱗肆, 奈何乎天. 嗚呼, 唏矣!”

45) 이의현, 「右議政忠憲金公神道碑銘并序」, 『도곡집』 권10. “時姦壬秉政, 世道否塞, 制除, 遂退居湖西之靑陽, 課耕讀書, 庚申陽復, 始赴舉.”

46) 위의 글. “有姓吳人處要地, 夙惡亡狀, 公惡其爲, 不直視. 其人銜未發, 會羣議將推轂公入銓, 遂嗾其黨遏之.”

다. 이는 묘도문이 아예 허구나 우언 또는 풍자 등 문학적 장치를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문예적 성격의 글도 아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만 기술하는 글도 아니기에 가능한 것이다. 묘주의 생애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묘주와 묘주가 속한 집단의 입장을 드러내기에 용이하다는 점은 묘도문이 지닌 단점이자 장점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묘도문은 주관과 객관, 허구와 사실, 과장과 진실, 욕망과 현실이 팽팽하게 맞선 무대이기도 했던 셈이다.

4. 모의의 배경 : 전후칠자 비판의 실제적 도구

김창협이 『雜識』에서 李攀龍(1514~1570)과 王世貞(1526~1590) 등 소위 복고파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비판의 대부분이 유독 묘도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비지문과 사전문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며, 구양수까지만 하더라도 비록 사전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했던 김창협의 견해를 거론한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바로 뒤에 ‘명에 이르러 비로소 순전히 사전체를 사용하여 비지를 짓기 시작했다’고 하며, 그 결과 ‘體要가 없어져 비문의 簡嚴한 필법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였는데⁴⁷⁾, 다음 글을 보면 이러한 비판이 결국 복고파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王弇州가 스스로 班固와 司馬遷을 배웠다고 했는데, 그가 쓴 碑誌의 서사는 온힘을 다해 반고와 사마천을 모방하여 마치 고인을 따라잡을 듯이 하였지만, 기실 송나라의 歐陽脩와 王安石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 지금 구양수의 여러 비지를 읽어보면, 綱領을 끌어당기고 關節을 착중한 것 하나하나가 법도가 있어, 간략하면서도 두루 갖추었고 상세하면서도 번잡하지 않으며, 意도는 한가하고

47) 金昌協, 『雜識』; 『農巖集』 권34. “至明人, 始純用史傳體爲碑誌, 而又不識古人敘事之法. 故其文遂無體要, 而碑誌簡嚴之法, 掃地矣.”

情事는 곡진하며, 風神이 생동하는 곳은 또 왕왕 그림 같았다. 茅鹿門이 “태사공의 정수를 얻었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⁴⁸⁾

명나라의 문장가 가운데 李于鱗과 같은 사람은 오로지 옛사람들의 자구를 가져다 엮어 문장을 만들었으니, 이는 비루함이 심하다. 또한 王元美도 전에 이러한 병폐를 논의하였으나, 그 자신이 지은 것을 보면 역시 이러한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碑誌의 敘事와 같은 것은 온통 사마천과 반고의 어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작품마다 중복되어 나와 눈에 들어오는 족족 모두 진부하다. 韓退之가 애써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 것을 또한 온힘을 다해 지어놓고 스스로 당·송보다 뛰어나다고 말함은 어째서인가?⁴⁹⁾

後七子를 대표하는 왕세정과 이반룡을 겨냥한 두 발언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말해 ‘모의’로 요약된다. 당송의 제가를 뛰어넘어 양한의 사전문을 직접 배우고자 했지만 말단적인 자구의 모방에 머물렀을 뿐, 핵심이라 할 ‘綱領’과 ‘關節’은 정작 배우지 못해 진부한 비지문을 짓게 되었다는 것이다. ‘옛사람들의 간결함은 篇法에서의 간결함이고, 명나라 사람들의 간결함은 字句에서의 간결함’이라거나 ‘옛사람들의 상세함은 大體에서의 상세함이고, 명나라 사람들의 상세함은 小事에서의 상세함’이라고 하며, 구양수 등 송대의 비문과 상인 또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왕세정의 비지·전장을 비교한 것도 같은 맥락에 놓인 발언이다.⁵⁰⁾

48) 위의 글. “王弇州自謂學班·馬, 爲碑誌敘事, 極力摹畫, 若將以追踵古人, 而其實遠不及宋之歐·王. 今讀歐公諸碑誌, 其提挈綱領, 錯綜關節, 種種有法, 簡而能該, 詳而不繁, 意度閒暇而情事曲盡, 風神生色處, 又往往如畫. 茅鹿門以爲得太史公之髓者此也.”

49) 위의 글. “明文, 如李于鱗專取古人句字, 屬綴成文, 其陋甚矣. 元美亦嘗議此病, 而觀其自爲, 亦不免此. 碑誌·敘事類, 皆襲用馬·班句語, 篇篇複出, 入眼皆陳. 凡退之之所務去, 方且極力爲之, 而自謂高出唐·宋, 何也?”

50) 위의 글. “古人之簡, 簡於篇法, 明人之簡, 簡於句字. 古人之詳, 詳於大體, 明人之詳, 詳於小事. 故歐陽公作王·范二文正碑, 其文不滿二千言, 而其作相事業與平生大節, 摸寫殆盡. 弇州作商販婦女誌傳, 其人瑣瑣無足記, 而其文動累百千言, 此可見工拙之辨也.” 왕세정의 商販 碑誌文에 대한 김장협의 비판에

이러한 시각은 그의 제자인 이의현에게도 계승되어 나타난다. 이의현은 ‘고문의 법도가 매우 簡嚴하여 쓸 데 없는 자구가 전혀 없었다’고 하고, 意致와 法度만을 취한 당송팔가의 法古를 모범적인 방식으로 꼽았다. 그리고 이를 이어서 ‘명의 李攀龍·王世貞 등은 左丘明과 司馬遷과 나란히 달리고자 하였으나 造語가 불필요하게 길고 넘쳐날 뿐이라서 비루하다’고 맹렬하게 논박하였던 것이다.⁵¹⁾ 그러나 이의현이 스승 김창협시의 시각을 그대로 반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문은 平暢한 것으로 으뜸을 삼는 것이 있고 簡奧한 것으로 주를 삼는 것이 있다. 요약한다면 맥락이 문란하지 않고 서술함에 법도가 있어 함께 문장의 법도에 맞으면 그만이지 꼭 치우쳐 한 가지 격식을 주로 할 필요는 없다. 근래에 문을 말하는 자들이 걸핏하면 ‘簡’ 한 글자로만 말하여 구절의 글자를 되도록 短濫하게 한다. ‘簡’이라는 말이 어찌 다만 구절의 글자에서 구해지겠는가. 篇法과 章法이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만약 그 글귀는 간략하되 말을 길게 늘어놓으면 어찌 ‘簡’을 귀하게 여긴 것이며 맥락이 서로 어그러지고 서술함이 정연하지 않으면 어찌 그 ‘簡’을 귀하게 여겼다고 하겠는가. 우선 명나라 사람으로 증명한다면 걸핏하면 先秦을 끌어다가 힘써 구법을 簡奧하게 하려 하나 서사에 있어서는 지극히 번다하다. 저들은 歐陽脩와 曾鞏을 하찮게 보지만 사실 歐陽脩와 曾鞏은 서사가 매우 간략하여 명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명인의 재력이 뛰어난 것이 진실로 후세 사람에게 견줄 바가 아닌데도 오히려 또 이와 같으니, 하물며 그 밖의 사람들은 말할 것이 있겠는가?⁵²⁾

관해서는 박경남(2010) 참조.

- 51) 이의현, 『雲陽漫錄』; 『도곡집』 권27. “古文法度甚簡嚴, 絕無浮字贅句. 下至唐宋韓·歐·蘇·曾諸公, 無不皆然. 且韓·柳以下八家, 雖一意法古, 只竊取意致法度而已, 文字則絕不襲用, 非其才不能也, 薄而不爲也. 至皇明李·王諸公, 自謂: “高出韓·歐, 直與左·馬並驅.” 而造語多冗長, 浮贅字句, 不勝指摘. 且雜取諸子左·馬文字, 複複相仍, 拾掇韓·歐諸公已棄之餘, 而高自稱許, 可謂陋矣.”
- 52) 위의 글. “文有以平暢爲長者, 亦有以簡奧爲主者. 要之脉絡不紊, 叙致有法, 俱合於文章規度則斯已矣, 正不必偏主一格也. 近來稱文者, 輒以簡之一字爲言, 句字務爲短濫. 簡之爲言, 豈但以句字求之哉. 篇法章法, 無不皆然. 若簡其句而冗其語, 則何貴其簡, 脉絡相戾, 叙致不整, 則何貴其簡. 姑以明人證之, 明人動

전체적인 논조는 김창협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문장의 성격에 어울리는 체제가 있지만 맥락이 일관되고 서술상의 법도가 갖추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한 가지 격식’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한 점은 유연성의 측면에서 김창협의 견해를 보완하고 있다. 이의현의 묘도문 가운데 사전문의 서사적 특징을 농후하게 띤 작품이 여러 편 존재하는 것도 이처럼 유연한 작문태도를 지니고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복고파의 묘도문에 대한 김창협과 이의현의 비판은 순수한 의미의 문학비평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띠기도 한다. 왜냐하면 심미적이거나 예술적인 측면에서의 비판이라기보다는 당송제가를 부정한 복고파의 불온한 학문 태도를 더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⁵³⁾ 만약 복고파에 대한 비판이 문학의 심미성이나 예술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면 장르를 불문하고 문제를 제기하였어야 옳다. 하지만 그들의 비판은 유독 비지문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비지문이 작가의 자율성이 용인되는 여타 장르에 비해 찬술의 목적성과 체제가 명확해서 논쟁의 대상으로 삼기에 용이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고파의 비지문이 사전문의 체제를 띤 것이 문제라는 김창협의 태도는 과연 온당할 것일까? 왕세정은 六經을 비롯한 모든 문장을 역사의 일부로 파악했다. 육경은 역사 가운데 이치를 다룬 글이고, 編年·本紀·列傳 등은 정격의 역사서이며, 敍·記·碣·銘 등은 변격의 역

引先秦，務欲簡奧其句法，而叙事則極其繁蕪。彼固下視歐·曾，而實則歐·曾叙事甚簡，大勝於明人。明人才力之雄，固非後人之比，而猶且如此，況其他乎？”

- 53) 위의 글. “聖人之道，具在六經。固學者所共剗心，而雖欲爲詞章之末，外此亦不可他求。蓋文而無理，不可謂之文。欲其詞理俱備，捨聖經何適矣。是以上自兩漢諸公，以至唐宋八大家，皆本經術爲文。蘇氏父子雖未能脫縱橫氣習，其源則亦出六經，千古文章正脉，實在於此。皇明王·李諸人，專學先秦諸子，意欲跨韓·歐而上之，與左·馬並驅，而其文不本於經。故語不馴而理則媿，比之曾·王，猶不及，況左·馬乎。嘗怪明人開口，便說先秦，六經獨非先秦乎。譬如酒醴，六經醇也，先秦諸子醜也。夫既專力於先秦，則又何以捨其醇而啜其醜也。可謂枉費工夫矣。”

사서이며, 訓·誥·上書·封事·尺牘 등은 역사가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적인 글들이며, 論·辨·說·解 등은 역사를 작동시킨 논리요 근거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⁵⁴⁾ 이러한 입장을 근거로 왕세정을 변호한다면, 비지문에 사전문의 체제를 접목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상인이나 부녀자처럼 ‘하찮은’ 인물들도 역사의 일부로 기록될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변적 성리학이 심도를 더하고 당송고문이 전범적 지위를 공고히 했던 17~18세기 조선의 문단에서 이처럼 당송고문의 성취를 부정하는 태도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었다. 集註의 오류를 지적한 英祖에게 ‘그 裁度와 去就는 물을 넣어도 세지 않을 정도로 한 글자, 한 글귀가 모두 意義가 있는 것이라 바꿀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변론하고⁵⁵⁾ ‘商人의 말투가 섞여있다는 이유로 주희의 학문을 부정한 崔昌大(1669~1720)에게 소스라치게 놀라 말도 섞지 않았다’⁵⁶⁾고 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존주자적 학문관을 견지한 이의현 역시 복고파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는 매한가지였다. 비록 개인적 취향에 경도되어 『列朝詩集』에 왕세정과 이반룡의 시를 적게 선록한 錢謙益(1582~1664)의 태도를 공평치

54) 王世貞, 『藝苑卮言』 권1. “天地間無非史而已. 三皇之世, 若泯若沒. 五帝之世, 若存若亡. 噫, 史其可以已耶? 六經, 史之言理者也. 曰編年, 曰本紀, 曰志, 曰表, 曰書, 曰世家, 曰列傳, 史之正文也. 曰敘, 曰記, 曰原先, 曰碣, 曰銘, 曰述, 史之變文也. 曰訓, 曰誥, 曰命, 曰冊, 曰詔, 曰令, 曰教, 曰箴, 曰上書, 曰封事, 曰疏, 曰表, 曰啓, 曰箋, 曰彈事, 曰春天記, 曰檄, 曰露布, 曰移, 曰駢, 曰諭, 曰尺牘, 史之用也. 曰論, 曰辨, 曰說, 曰解, 曰難, 曰議, 史之實也. 曰贊, 曰公布, 曰箴, 曰哀, 曰誄, 曰悲, 史之華也.”

55) 이의현, 『陶峽叢說』; 『도곡집』 권28. “他日又入侍, 上頗摘『朱子集註』之誤, 余力辨其不然. 且言: ‘朱子定著『集註』, 用盡一生心力, 其裁度去就, 置水不漏, 一字一句, 皆有意義, 不可移易. 聖上若觀『論語或問』, 則可知註說之十分的當矣.’

56) 위의 글. “余少時, 與崔昌大爲翰苑同僚. 昌大肆言: ‘朱子學問之無可取.’ 余極駭責曰: ‘君乃敢發此惡口, 獨不畏上天乎.’ 昌大笑曰: ‘君亦泥於世俗之論矣. 君試看朱子『太極問答』. 直是賈豎辭氣, 豈粗有涵養之人, 所可爲者乎?’ 余益駭, 不復與言.”

못하다고 비판하고⁵⁷⁾ 복고파 문장의 성취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지만⁵⁸⁾, 복고파의 학문태도나 문학론 자체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처럼 묘도문은 창작의 실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창작론을 가장한 사상·학문 논쟁의 도구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IV.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묘도문은 창작 목적과 문체 특징이 뚜렷해 찬술자의 개성이 발휘될 여지가 비교적 적은 장르이다. 그러나 이렇게 규범적이고 도식적인 특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창작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생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묘도문이 비록 장르적 제약도 크지만 문장가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장르라는 매력 또한 컸기 때문이다. 묘도문을 짓는다는 것은 당대의 일류 문장가로 인정받음을 의미하며, 정사에서 다루지 못한 역사를 후세에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이다. 이점에서 묘도문의 찬술자는 자신을 사관과 동일시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고자 노력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막상 찬술과정에는 묘주 및 청탁자와의 관계, 정치적 역학구도, 사상적·학문적 견해차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신의 소신을 접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글을 수정하기도 하고, 인물의 형상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체의 서술방식을 과감하게 접목하기도

57) 이의현, 『雲陽漫錄』; 『도곡집』 권27. “牧齋素不喜王·李詩學, 掎擊過酷. 故北地·滄溟·弇園諸作, 所錄甚少. 此諸公詩什繁富, 就其中抄出, 豈不及於無甚著名者之一二篇, 而彼則濫收, 此則苛汰, 亦似偏而不公矣.”

58) 이의현, 『陶峽叢說』; 『도곡집』 권28. “李空同, 始以先秦諸子爲準則, 刻意摹倣, 其才力固雄驚, 而所就頗乖雅馴. 及夫王弇州·李滄溟·汪太函輩起於隆萬間, 一以學古自命. 滄溟尤以槎牙險崛爲主, 讀之, 絕無意味, 太函亦然. 弇州所見雖同, 其才具實大, 比諸子爲最, 故其文亦稱頗有一二可喜處. 然非韓·歐正派, 自是別流也.”

하며, 심지어 묘주의 편에 서서 묘주와 갈등을 빚은 집단이나 인물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비판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亡子墓誌」와 「亡子墓表」, 「自誌」와 「自表」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곡집』에 수록된 묘도문 대부분이 청탁에 의해 찬술되었음에 반해 이 일련의 글은 외부적 요인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작성된 글이다. 이를 살펴보면 자식을 잃은 애끓는 부정이 진솔하게 나타난다거나⁵⁹⁾ 오로지 운문으로만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묘사하기도 하는⁶⁰⁾ 등 다른 묘도문과 구별되는 특징이 일부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의현은 감정의 과잉을 경계하고 일정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⁶¹⁾ 이것은 이의현의 엄격한 창작정신이 사적인 묘도문에까지 철저히 적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59) 이의현, 「亡子墓誌」, 『도곡집』 권18. “余亦倚爲克家之能子, 賴以忘憂, 亦喜繼述先懿之有人也. 每於風簷月軒, 父子相對, 或談經評史, 或論文說詩, 以及斯文是非之關, 世道汚隆之幾, 有叩必韻, 如響斯應, 盖與余胸中所經緯, 無一違齟, 古所謂‘相視而笑, 莫逆於心’者, 不過是矣. 惟此天倫之至樂, 實非人人所可得, 乃被鬼神之猜媚, 致有今日之酷禍, 尙何言哉!”

60) 이의현, 「自表」, 『도곡집』 권20. “老人姓李龍仁氏, 名曰宜顯德哉字. 爾諱世白位台垣, 妣與祖妣亦相門. …(중략)…名孫學祚意有諷, 戒爾勿替讀書種. 玄癸春夏臥病久, 預述小表以詒後.”

61) 「亡子墓誌」를 예로 들자면, 죽은 자식의 벗들의 증언을 빚으로써 亡子에 대한 기록이 단지 아버지의 입장만 취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공론임을 강조하고자 했다.

<參考 文獻>

- 金尙憲, 『淸陰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1990), 『한국문집총간』 77,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 金昌協, 『農巖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1997), 『한국문집총간』 162,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 朴世采, 『南溪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1994), 『한국문집총간』 138~142,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 柳夢寅, 『於于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1990), 『한국문집총간』 63,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 柳長源, 『常變通攷』; 한국고전의례연구회 역(2009), 『국역 상변통고』 1~10, 경주 : 신지서원.
- 宋時烈, 『宋子大全』; 민족문화추진회 영인(1990), 『한국문집총간』 108~116,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 宋相琦, 『玉吾齋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1997), 『한국문집총간』 171,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 李宜顯, 『陶谷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1997), 『한국문집총간』 180~181,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 李滉, 『退溪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1989), 『한국문집총간』 29~31,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 鄭澐, 『丈巖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1995), 『한국문집총간』 157,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 吳訥, 『文章辨體序說』; 王水照 편(2007), 『歷代文話』 제2책, 上海 : 복단대학출판사.
- 王世貞, 『藝苑卮言』; 程千帆 주편(1992), 『藝苑卮言校注』 濟南 : 齊魯書社.
- 黃宗羲, 『金石要例』; 王水照 편(2007), 『歷代文話』 제4책, 上海 : 복단대학출판사.
- 褚斌杰(1990), 『中國古代文體概論』, 北京 : 北京大學出版社.

- 강명관(2007), 『농암잡지평석』, 서울 : 소명출판.
- 김우정(2011), 「宣祖 연간 文風の 변화와 壽序」, 『동방한문학』 47집, 동방한문학회.
- 민복기(2007), 「陶谷 李宜顯 散文批評의 淵源에 대한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경남(2010), 「金昌協의 비관을 통해 본 王世貞 散文의 진면목 : 商販 碑誌文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46집, 한국한문학회.
- 박관규(2011), 「尤庵 宋時烈의 碑誌文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사경화(2012), 「陶谷 李宜顯의 簡嚴 追求와 文學的 具現 : 碑誌類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한석(2012), 「16세기 후반 碑誌類 文章의 美意識 분화에 관한 考察」, 『동방한문학』 50집, 동방한문학회.
- 신복호(2004), 「18세기 館閣文學 研究 : 李宜顯·李德壽·徐命膺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종호(1996), 「조선조 고문론과 碑誌類 散文 : 그 傳記文學的 性格을 중심으로」, 『한국 고문의 이론과 전개』, 서울 : 태학사.
- 임완혁(2010), 「碑誌文에 나타난 亡人의 形象化 方式 : 碑誌文을 둘러싼 人間의 相互關係를 통해 본」, 『대동한문학』 32집, 대동한문학회.
- 정순희(2004), 「古文論과 碑誌類의 상관성 : 陶谷 李宜顯의 碑誌類를 중심으로」, 『語文研究』 46, 어문연구학회.
- 황의열(2006), 「碑誌類의 특징과 변천 양상」, 『동방한문학』 31집, 동방한문학회.

Abstract

Multi-layered Character of Dogok(陶谷) Lee Uihyon(李宜顯)'s Epitaph
/ Kim Woo Jeong*

Dogok Lee Uihyon(1669~1745) is a civil minister during the reign of Sukjeong~Yeongjo and is a writer who played a major role in strengthening and spreading the logic of the ancient writings of Tang-Sung Period after Kim, Changhyup(1651~1708). This aspect is well shown in epitaphs approaching 200. Writing an epitaph means to be recognized as the first class writer of the age. Also, it is also attractive in terms of being able to hand the history not covered in official history down to posterity. Thus, a writer of an epitaph not only shows off his writing skills but tries to convey only objective facts from the perspective of a historiographer. However, the various factors are involved in the writing proces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an owner of tomb and requester, political dynamics, difference of ideological · academic views and as a result, it takes on several multi-layered nature different from general prose.

Lee Uihyon made every possible effort to avoid the alleged flattery, the inherent problem of an epitaph and contain the virtue of reputation or character. For this reason, contents or expressions were modified in consultation with a requester and people around putting aside personal tastes and if collective interests conflicted, quite subjective and exclusionary attitudes were shown.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e genre were overcome by boldly employing the narrative structure to improve the representation of a character and the literally notable features are shown such as using it as a means of practical criticism on Ming's restorative school.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 rtoran@dankook.ac.kr

【Key words】 Lee Uihyon(李宜顯), Song Shiyeol(宋時烈), Kim Chang-hyup(金昌協), Ming's restorative school(前後七子), Epitaph, description, rhetoric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일 : 11월 29일, 게재확정일 : 12월 7일